

사회

뿌리깊은 의약품 리베이트 실체 ... 의료계 도덕불감증 확인

자문료...카드깡...‘뒷돈 백화점’

광주지검, 70명 적발·31명 소환조사

29일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의약품 ‘리베이트’의 실체는 의료업계의 도덕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리베이트’는 소위 ‘랜딩비’(의약품 납품 사례비)에서부터 학회 경비, 회식비

‘카드깡’ 지원까지 전방위적으로 뿌리를 박고 있었다. 광주·전남 의료업계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리베이트’ 수사로 인해 지역 대형 병원 의사 10명이 줄줄

이 기소됐기 때문이다.

또 이를 가운데는 각 병원을 대표하는 ‘간판급’ 의사, 이른바 ‘키닥터’(Key Doctor)가 상당수 포함됐다는 점에서 사태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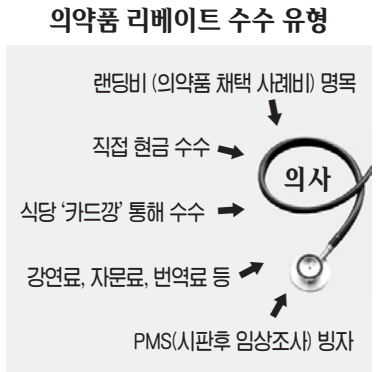
◇납품 대가 ‘뒷돈’서 카드깡까지.. ‘리베이트’ 백태=이날 기소된 의사들이 제약 업계로부터 ‘뒷돈’을 받는 방식은 다양했다. 납품 사례비인 ‘랜딩비’를 비롯, PMS(시판 후 임상조사)비, 자문료, 강연료, 논문 번역료, 학회·세미나 참가 경비 지원 등 마치 ‘뒷돈’ 백화점을 연상케 한다.

검찰은 이 가운데 PMS에 주목했다. 통상 PMS는 제약회사에서 제공한 환자 1인당 1장짜리 체크리스트 형식의 양식지에 의사가 환자의 인적 사항과 약물처방 내역 등을 적고 장당 5만~10만원의 받는다. 그러나 ‘뒷돈’의 사들은 PMS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아예 하지도 않은 조사를 대가로 돈을 받기도 했다.

또 번역료의 경우 제약사 입장에선 아무 필요가 없는 해외 논문 5~6장에 대해 번역을 요청하는 수준이었고, 국내·외 학회 참석 비용도 상당 부분 제약사가 냈다. 아울러 강연료와 자문료도 ‘리베이트’를 건네기 위한 명목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광주기독병원의 한 의사는 속칭 ‘카드깡’을 하는 수법으로 2천 500여만원을 챙겨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의사는 허위 회식비를 제약회사 직원에게 선결제하도록 한 뒤 식당 업주를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병원 의사 도덕 불감증 심각=이날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병원 의사들의 도덕 불감증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돌보아야 할 의사들이 의약품의 약



효보다는 ‘뒷돈’ 제공 여부에 따라 약을 처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기소된 의사들 가운데 일부는 지역 대형 병원을 대표하는 ‘키닥터’로 확인돼 의료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들 ‘키닥터’는 해당 사항과 약물처방 내역 등을 적고 장당 5만~10만원의 받는다. 그러나 ‘뒷돈’의 사들은 PMS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아예 하지도 않은 조사를 대가로 돈을 받기도 했다.

또 번역료의 경우 제약사 입장에선 아무 필요가 없는 해외 논문 5~6장에 대해 번역을 요청하는 수준이었고, 국내·외 학회 참석 비용도 상당 부분 제약사가 냈다. 아울러 강연료와 자문료도 ‘리베이트’를 건네기 위한 명목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광주기독병원의 한 의사는 속칭 ‘카드깡’을 하는 수법으로 2천 500여만원을 챙겨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의사는 허위 회식비를 제약회사 직원에게 선결제하도록 한 뒤 식당 업주를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병원 의사 도덕 불감증 심각=이날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병원 의사들의 도덕 불감증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돌보아야 할 의사들이 의약품의 약



29일 영암군 영암읍 영암군청 직원 김모(51)씨의 집에서 진행된 경찰의 현장검증 중에서 김씨의 아들(24)이 부모를 살해하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암 패륜아 ‘부모 살해’ 현장검증

담담하게 재연...주민들 ‘경악’

경찰, 구속영장 신청

자신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패륜아(穆倫兒)가 범행 닳새 뒤 실시된 현장검증에서도 담담하게 범행을 재연했다. 영암경찰청은 29일 영암읍 춘양리·농덕리 일대에서 ‘부모 살해 인사건’ 피의자인 아들 김모(24)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김씨는 영암읍 춘양리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아버지(52)를 둔기로 살해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을 차례로 재연했다. 김씨는 이날 검은색 상·하 운동복 차림에 남색 모자를 눌러썼으나 취재진과 주민, 친인척들이 몰려들자 고개를 푹 숙였다.

영암경찰 수사과의 한 형사가 “둔기를 어떻게 휘둘렀느냐?”라고 묻자, 김씨는 담담한 자세로 둔기를 휘둘르는 시늉을 수차례 되풀이했다. 이어 김씨는 집안 화장실에서 샤워한 뒤 자신의 방으로 자리를 옮겨 옷을 갈아입고 범행도구를 닦아내는 모습도 재연했다. 김씨는 현장검증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50)에게 흉기를 휘둘

러 살해하는 장면도 연출했다.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금 불만이 있었다. 술을 마시고 실수하고...”라며 불만을 드러냈고, “어머니는 왜 죽인 거냐”는 질문에는 잠시 머뭇거리며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경찰이 설치한 출입통제선을 넘고 들어온 한 주민은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며 몸을 떨었다. 순간 김씨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떨어뜨렸다. 집에서 나온 김씨는 영암군 영암읍 농덕리 아산에서 범행 당시 입었던 옷 등을 태우는 장면과 영암군 청풍저수지에서 살해 도구인 흉기와 둔기를 버리는 장면을 차례로 재연했다. 김씨는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현장검증 내내 얼굴을 감추려는 듯 연방 모자 챙을 잡아 내렸다.

경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30일에는 영암 청풍저수지에서 잠수부를 동원, 흉기 등 수색작업을 할 계획이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영암=이상규기자 lsh@kwangju.co.kr

“부동산 투자” 35억 사기 50대 女 구속

광주지검 공판부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종환)는 29일 “부동산 경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여원을 받아챤 혐의(사기)로 박모(여·5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5월 광주시 동구 자신의 부동산매

사무실에서 “5천만원만 빌려주면 부동산 경매로 돈을 돌려 매일 30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A씨에게 1천만원을 받는 등 4명으로부터 35억5천여원을 받아 가로챘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검찰에서 “투자금으로 받아 경매에 투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7992) 김장두



보조금 편취 어민 등 8명 조사

목포해양경찰청은 29일 해양수산업 보조금을 편취한 김모(60)씨 등 어민과 업자 8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해상 콘도식 건조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억4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간질환자 차 몰고 병원 돌진 ‘소동’

○광주에서 간질환자가 몰던 승용차가 병원으로 돌진해 병원 직원 1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한바탕 소동.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29일 오전 11시25분경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병원 1층 현관 옆 벽면으로 정모(52)씨가 몰던 레간자 승용차가 돌진해 이 병원 약사 김모(36)씨가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었다는 것.

○운전자 정씨는 사고 직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차를 운전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병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정씨가 간질환자로 현재 약을 복용 중이며 차를 몰고 병원 앞을 지나가던 중 도로에서 10m 이상 후진을 한 후 갑자기 병원으로 돌진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29일 강경필 광주지검 차장과 김재구 특수부장 등 검찰 관계자들이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동료교수 명예훼손 모 치과병원장 벌금형

광주지법, 200만원 선고

광주지법 형사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29일 강외의 동문모임에서 동료 교수를 헐뜯아 명예를 훼손한 혐

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 치과병원장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실 관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

은 상황에서 ‘동료 교수인 B씨가 의국비를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고 유용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동문모임에서 비슷한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6월 15일 강의와 같은 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식당에서 열린 동문 모임에서 B씨의

의국비 관리 문제를 거론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앞선 2007년 3월 30일 치과대학 위생사 환송식 참석 여부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후 갈등은 치과대학 전체로 번지고 두 교수 간 민·형사상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ESACON water treatment system, highlighting its benefits for water purification and health.

Advertisement for a real estate agency, offering services for property transactions and investment.